일 주 문



만화 스님 시봉이야기 출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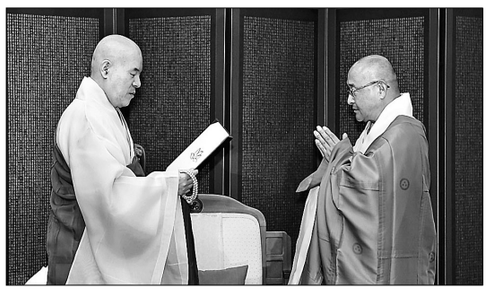
원행 평창 월정사 부주지 스님은 9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그랜드앰버서더호텔에서 만화 스님 시봉이야기 출판법회를 개최한다.



탄허강숙 도덕경 강의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는 9월 5일 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에서 노자 도덕경 강의를 진행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13일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에 성우 스님을 임명했다. 성우 스님은 지난 8월 16일 금산사 산중총회서 새 주지후보로 추대된 바 있다.

자승 스님은 임명장 전달식에서 "지역사회 시민단체, 불교단체와 협력해 여법한 지역포교가 이뤄지도록 전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성우 스님은 "서로 화합해 교구를 원만히 이끌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우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했으며, 은적사 주지 및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원정 대성사 36주기 추선불사



불교총지종은 9월 8일 창종주 원정 대성사의 '열반 제36주기 멸도절 추선불사'를 서울 원정기념관과 전국사원에서 봉행했다. 원정기념관서 진행된 추선불사에는 종령 효강 정사를 비롯해 교정부장 법일 정사, 재무부장 원당 정사 등 교도 200여 명이 동참했다.

원정 대성사는 1972년 12월 불교총지종을 창종하고 종단 저술과 역경을 비롯해 교상확립(教相確立)과 사교이상(事教二相)의 정립을 위해 힘썼다. 1980년 9월 8일 총지사에서 74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학 위상 높이는 계기 만들겠다"

Interview

2020세계불교학대회 유치한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중국 절강대와 경쟁해 성공
아시아서 4번째 韓 개최 최초
인문학적으로 접근 연구 필요

"불교학의 영문명은 'Buddhist Studies'입니다. 공부(Study)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죠. 이는 불교의 역사부터 철학, 예술 등 모든 학문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서계불교학대회 한국 유치는 한국불교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화 수화기 너머 대회 유치 소감을 말하는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목소리는 기쁨이한껏 묻어나왔다. 그는 2020년 세계불교학회 제19차 대회를 서울대에 유치하는 데 대표 신청자로 나섰다.

1976년 창립된 세계불교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열린다. 대회마다 500여 명의 불교학자들이 참석해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불교학 올림픽'으로 볼 수 있다.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타이완,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절강대와의 유치 경쟁 끝에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중국 절강대에서 유치 신청을 한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최근 중국불교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은 긴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인적·물적 자원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불교학 연구의 역사가 깊고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대가 개최지로 낙점됐다고 봅니다."

이제 조 교수의 목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 5일간 진행되는 대규모 학술대회 이외에도 한국 주요 사찰들을 방문·순례하는 프로그램을 2박 3일 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교학이 '종학(宗學)'적 연구에만 치중돼서는 안됩니다. 역사·철학 등 학문적 과학적 연구가 바탕이 되고 상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불교와 불교학이 세계에 위상을 높이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2020년 세계불교학회 제19차 학술대회는 서울대에서 8월 중에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소외계층 돌본 '백미선사', 회고록 간행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9월 10일 팔순 맞아 봉정법회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팔순법회에는 스님 20여 명을 비롯한 불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스님의 팔순법회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단촐하게 진행됐다.

독거어르신과 교도소 재소자 등 소외계층을 끊임없이 돌봐 온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이 팔순을 맞아 회고록을 간행했다.

현성 스님은 9월 10일 서울 흥은동 현성정사에서 '회고록 봉정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도선사 前주지 동광 스님과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을 비롯한 문도와 종성 스님, 마가 스님 등 상좌 및 손상좌 등 20여 스님 및 불자들이 함께 했다.

스님은 봉정법회에서 노자의 '수유칠덕(水有七德)'을 예로 들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각각타의 길을 걷는 것도 자신을 물처럼 만들어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매품 법공양 판으로 제작된 회고록에는 스님의 어린 시절과 출가 이후의 수행과 전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또 불교계 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들과 생활법어, 문화재 보존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 등을 다룬 석사학위 논문도 실렸다. 노덕현 기자

33관음성지 순례 마친 일본인 "한국 사람 좋아요"

고노 아이와, 불교문화사업단 선정 33관음성지 순례 수료



일본인 고노 아이와(72·사진) 씨가 우리나라 33관음성지 순례를 완료해 화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9월 13일 고노 아이와 씨의 33관음성지 순례 수료식을 진행했다.

33관음성지는 불교문화사업단이 전국 주요 사찰 33곳을 지정하고, 참배 후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순례 완료 시 수료증, 기념패 등을 증정한다.

고노 아이와 씨는 2013년 순례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6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조계사, 봉은사, 용주사, 신륵사, 봉은사, 신흥사 등 우리나라의 관음 명소 33곳을 돌았다. "일본 지역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33관음성지를 알게 됐다"는 고노 아이와 씨는 "순례 동안 힘든 점도 있었지만 부처님을 뵈면 피로가 다 사라졌다. 템플스테이 지도 법사 스님들과 종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고 웃어보였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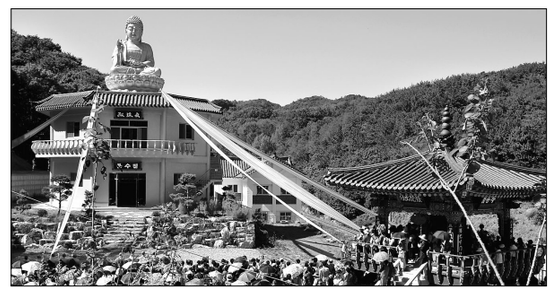
동국대 석림회, 장학기금 기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가 장학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석림회 스님들은 9월 1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화백홀에서 장학기금 1천만 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은 석림회 스님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신성민 기자

무일선원, 약의왕여래불 점안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 무일선원은 9월 13일 '약의왕여래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약사여래부처님은 약사유리광여래라고 일컬어지며, 12대원을 세움으로써 정유리세계라는 불국토 건설을 완성했다고 알려진다. 무일선원에 점안된 약의왕여래불은 높이 12미터로 12대원을 상징한다.

무일선원은 "약사여래불을 화신불로 모신 것은 대단한 인연 중의 인연이며, 약사여래를 친견하는 것만으로도 4가지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연합불교방송 설립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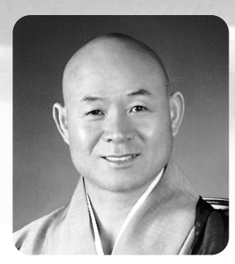


연합불교방송은 9월 12일 방송 및 법인 설립 18주년 기념 평화기원 호국대법회를 충북 옥천 명가 대연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사단법인 대중불교조계종 종정 향덕 스님의 대회사에 이어 불명 오계 수계 법요식과 평화상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각 종단 스님들과 신도들은 자비와 세계평화의 불국토를 이룩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